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3.18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IEA 만장일치로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합의 p.1
- 02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 p.2
- 03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 "지원금 2배·자부담 폐지" p.3
- 04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p.4
- 05 우리나라 세계 수출 1위 품목, 5년 연속 10위 유지 p.5

1 IEA 만장일치로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 방출 합의

한국은 전체의 5.6% 할당받아 방출 시기 및 물량 조정 중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32개 회원국은 3월 11일(현지시간) 4억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시장에 방출하는 데 만장일치 합의했다. 이번 공동 행동은 전날 긴급이사회회의 임시회의 이후 결정됐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총 2,246만배럴을 방출할 예정이다. 이는 전체 물량의 5.6% 분량이다.

IEA는 1973년 '오일 쇼크' 이후 석유수출기구(OPEC)의 공급 통제에 대응하고자 만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구로 회원국은 최소 90일 이상의 비축유를 보유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현재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OECD에 가입된 3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EA는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을 결의했다. 국가별 방출 물량은 국가별 소비량에 비례해 산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국가 상황에 적합한 기간 내에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3월 11일 IEA 보도자료 발표에 따르면 회원국은 12억배럴 이상의 긴급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6억 배럴의 산업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억배럴 수준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고 이번 긴급 방출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IEA 권고 기준 이상량을 보유하고 있어 국내 석유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IEA 설립 이후 여섯 번째 조치로 1991년 걸프전, 2005년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2011년 리비아 내전,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총 다섯 차례 공동방출한 사례가 있다. 이번에 결정된 4억배럴은 이전 러-우 전쟁 때 방출한 1억 8,270만배럴의 두 배 이상의 규모다.

2월 28일 시작된 미국-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출량은 분쟁 전 수준의 1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 IEA 조사에 따르면 2025년 하루 평균 2000만 배럴의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으며 이는 세계 해상 석유 무역의 25%에 해당하는 분량이다. 그중 80%의 물량이 아시아 국가에서 소비되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하는 원유의 70% 이상이 중동 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사태가 지속될 때 국내 시장 전반에 끼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을 우선해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을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IEA 사무국 역시 글로벌 석유 및 가스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회원국 정부에 권고안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2

유가 상승 틈탄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단속

관세청, 6주간 전국 항만 집중 점검

관세청이 국제유가 상승을 틈타 해상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관세청은 최근 증동 정세로 국제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6주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부산과 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총 475명이 투입된다. 세관은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해 면세유 불법유출 및 유통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제무역선은 세금이 면제된 선박 연료유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kl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했으며 면세금액 규모는 약 2,012억 700만원에 달한다. 공급되는 유류는 경유와 경질 중유, 바이오 경유, 바이오 중유 등이 포함된다.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은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선박연료유 일부를 선박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증동 상황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TF 단장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부산에 입항한 국제무역선 유류 공급과 저유소 출하 과정 등을 점검하며 해상 면세유 공급 체계를 확인했다.

이번 특별 단속에서는 면세유 불법유출과 관련된 다양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제무역선 선원과 급유업체 간 담합을 통해 유류를 전부 또는 일부분 적재하지 않는 행위, 선박이나 차량을 이용해 잔존 유류를 부정유출하는 행위, 적재 가능량보다 경유를 과다 적재 신청해 유류를 빼돌리는 행위가 있다. 또한 입항 보고 시 유류탱크 용량을 허위로 기재해 적재 허가를 받은 후 유류를 유출하는 사례와 급유선박 내부에 비밀 저장공간을 만들어 유류를 별도 보관한 뒤 불법 유통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관세청은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나 통고 처분을 비롯해 조사 부서의 범칙수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증동 상황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민생경제를 위협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관세청은 유가 상승 시기를 틈탄 면세유 불법유출 유통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3

산업부,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확대 “지원금 2배·자부담 폐지”

미 품목별 관세 대응 지원 및 컨설팅 강화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기업당 지원금은 기존보다 두 배로 늘리고, 자부담은 전면 폐지해 기업들의 참여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주요 교역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개편된 사업은 이날부터 기업 신청 및 활용 가능하다.

산업부는 사업 예산을 기존 10억 8,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당 최대 지원금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또한 매출 규모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되던 기업 자부담도 전면 폐지해 중소·중견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업들은 수입규제 조사 대응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과 조사 대응 지원을 보다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내용은 크게 수입규제 조사 대응 컨설팅과 신규 유형의 수입규제 대응 지원으로 구성된다.

먼저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에 대해서는 기본 컨설팅으로 수입규제 제도와 주요 국가별·품목별 동향을 안내한다. 심화 컨설팅에서는 특정 수입규제 조사 관련 답변서 작성, 조사 대응 전략 수립, 현지 실사 대응 등 실질적인 대응 지원이 제공된다.

또한 협·단체를 대상으로 산업 피해 분석과 공동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산업피해 컨설팅도 추진된다.

아울러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도 계속된다. 특히 지난해 신설된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 산정 및 파생상품 해당 여부, 비특혜원산지 및 HS Code 판정과 관련된 대응도 컨설팅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월 20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향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기업이 정부 지원을 활용해 수입규제 조사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는 이와 관련해 전국 주요 거점을 순회하는 릴레이 수입규제 대응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 제232조 관세 정책 동향과 파생상품 함량가치 계산 방식 등을 안내하고,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4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속도 낸다”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대미 투자·조선 협력 금융지원 위한 공사·기금 설립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3월 1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MOU를 체결한지 4개월만이다.

정부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과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절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는 총 3,500억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 협력 사업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대미 투자이며, 1,500억달러는 조선산업 협력, 투자 일명 ‘MASGA 투자’로 구성된다. MASGA 투자는 민간투자뿐 아니라 보증과 선박금융 등을 포함해 미국이 승인한 투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법안은 전략적 투자 추진 원칙으로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명시했다.

즉 투자 기간 충분한 현금 흐름을 통해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국가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거쳐 투자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략투자공사·기금 신설... 투자 추진체계 구축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전략적 투자기금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 출자로 설립된다.

법정자본금은 2조원이며, 20년 이내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해산된다.

또한 전략적 투자 재원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 재원은 공사 출연금, 한국은행 및 외국환평형기금의 외화자산 위탁, 해외 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된다. 조달된 재원은 대미 투자 사업과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등에 활용된다.

외환시장 안정 등 안전장치 마련

법안에는 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경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먼저 대미 투자 집행이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 시기와 집행금액을 조정하도록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20년 이내 개별 대미 투자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금흐름의 분배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국내 법령과의 충돌 여부,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미국정부의 인프라 지원 등 투자 환경 전반을 검토해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별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법 시행에 앞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동시에 추진해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5 우리나라 세계 수출 1위 품목, 5년 연속 10위 유지

2024년도 기준 81개 품목 중 메모리반도체·변압기·마스크팩 신규 포함

우리나라가 세계 수출시장에서 점유율 1위인 제품수는 2024년 기준 총 81개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0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점유율 2~10위인 품목 역시 늘어나고 있어 향후 1위 품목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월 17일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우리 수출의 경쟁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품목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나열한 것으로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1위 품목은 81개를 기록하며 5년 연속 10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2,087개로 5년 연속 1위를 유지했으며 독일, 미국, 이탈리아가 뒤를 이었다.

< 주요국 세계 수출 1위 품목 수 추이 >

국가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품목수 증감 (A-B)
	순위	품목수 (B)	순위	품목수	순위	품목수	순위	품목수	순위	품목수 (A)	
중국	1	1,823	1	1,926	1	2,009	1	1,977	1	2,087	264
독일	2	688	2	638	2	567	2	576	2	520	-168
미국	3	508	3	440	3	491	3	490	3	505	-3
이탈리아	4	205	4	212	4	198	4	230	4	199	-6
인도	6	156	5	173	5	175	5	172	5	172	16
네덜란드	7	154	7	140	6	142	6	150	6	146	-8
프랑스	9	107	8	119	8	108	7	130	7	134	27
일본	5	159	6	150	7	131	8	115	8	118	-41
스페인	8	110	9	108	9	101	9	104	9	110	0
한국	10	81	10	83	10	73	10	78	10	81	0
인도네시아	12	72	12	66	12	71	12	71	10	81	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UN Comtrade)

2024년 우리나라가 1위에 신규 진입한 품목은 20개로 메모리반도체가 중국을 제치고 5년 만에 1위를 차지했고 AI 혁명으로 인한 북미 중심의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로 변압기, K-뷰티 열풍에 힘입어 마스크팩이 각각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으로 발돋움한 것으로 파악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연속 1위를 기록한 품목은 37개로 비휘발성저장장치(SSD)는 2020년 대만을 제치고 처음 1위를 차지한 이후 5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량 시동용 납축전지, 차 부품용 고무 등 산업 분야에서도 1위를 유지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5 우리나라 세계 수출 1위 품목, 5년 연속 10위 유지

2024년도 기준 81개 품목 중 메모리반도체·변압기·마스크팩 신규 포함

일본의 경우 2020년 159개 품목(5위)에서 2024년 118개(8위)로 품목수와 순위가 동반 하락했다. 중국 시장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020년 341개 품목이 2024년 372개 품목으로 늘어난 반면, 일본은 700개 품목에서 663개 품목으로 감소했다.

< 한·일 1위 품목 수 격차 변화 (2020년→2024년) >

구분	2020년			2024년		
	한국	일본	격차	한국	일본	격차
세계 수출시장	81	159	78	81	118	37
중국 수출시장	341	700	359	372	663	291
미국 수출시장	109	233	124	139	168	29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UN Comtrade)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액이 1억달러 이상이면서 세계 점유율이 2~10위인 품목 중 지난 5년에 걸쳐 순위가 상승한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19, 미국 38개, 중국 33개, 독일 19개로 수출 1위 품목 대비 순위 상승 품목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2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